

전남 동부권

광양발전 힘 모으자

시-의회-광양제철 동반성장 공동선언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양지역 민·관·산이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이성웅 광양시장,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 백승관 광양제철 소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관·산 협력으로 관내 자영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의와 해결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법 모색 ▲광양제철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 등이다.



선언문은 지역사회와 광양제철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소통과 신뢰로 지역현안의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역사회와 광양제철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4개 항을 담았다.

선언문은 4개 항으로 내용은 ▲민·관·산 협력으로 관내 자영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의와 해결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법 모색 ▲광양제철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 등이다.

선언문 4개 항에 대한 각 항별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따로 마련됐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지역과 동반 성장에 이워지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는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와 의회, 광양제철 등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이 애써 노력한 결실”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 강화의 계기가 돼 지역과 기업의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선언문은 지역사회와 광양제철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소통과 신뢰로 지역현안의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역사회와 광양제철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4개 항을 담았다.

선언문은 4개 항으로 내용은 ▲민·관·산 협력으로 관내 자영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의와 해결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법 모색 ▲광양제철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 등이다.

선언문 4개 항에 대한 각 항별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따로 마련됐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지역과 동반 성장에 이워지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는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와 의회, 광양제철 등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이 애써 노력한 결실”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 강화의 계기가 돼 지역과 기업의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 상달제. 지난 20일 열린 '제19회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에서 음식을 하늘에 바치는 상달제를 지내고 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자랑하고 전민의 22개 시·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자연에서 찾은 건강음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남도 제공>

“불산 제조 공장 유치 중단하라”

광양시의회 광양항 배후부지 건립 추진 반대

광양시의회가 광양에 불산 제조공장 건립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외국계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광양항 배후부지에 불산 제조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항만공사에 전달했다.

광양시의회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제조공장 건립을 시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산 제조공장 유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여수광양 항만공사

는 앞으로 광양항 배후부지에 이 같은 유해업종이 유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며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강화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영국계 회사인 멕시컴은 2013~2014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광양항 서측배후부지에 연산 13만 5000t 규모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지난 2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MOU(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중국에 우뚝 선 여수門

자매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설립 우호협력 상징... 兩시장 참석 현판식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시의 국제자매 우호도시인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한복판에 두 도시의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여수문(麗水門)’이 세워졌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문은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고 두 도시가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로 웨이하이시 한국문화센터 입구에 한국전통양식으로 세운 대문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 기와 2만 장과 현판 표시석을 여수시가 지원해 마감장기장 일주문

의 설계를 토대로 건축했다.

20일 열린 현판식에는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여수시 대표단 일행, 장후이 웨이하이 시장, 웨이하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문은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고, 두 자매도시가 지난 17년간 쌓아온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문은 한류열풍을 타고 코리아 타운을 찾는 많은 중국인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여



여수시의 국제우호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여수시를 상징하는 여수문이 세워졌다.

수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웨이하이시는 중국 산둥성의 가장 동쪽으로 서해에 접해 있는 인구 249만 명, 면적 5436km의 항구 도시로 지난 95년 여수시의 자매결

연 이후 직원 파견과 문화 경제 교류 등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 중공업 등 15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3만 명의 한국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철희기자 chkim@

20cm 이하 감성돌 잡지 마세요

고흥군 낚시관리법 시행

고흥군이 최근 낚시를 건전한 레저 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의해 산재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했다.

조피볼락 23cm 이하·감성돌 20cm 이하인 경우에는 낚시가 금지되는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 낚시제한 기준이 정해졌다.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해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조충훈 순천시장 프랑스로 총리 만난다

정원박람회 지원 요청...세이셀공화국 대통령도 면담



조충훈(사진 왼쪽) 순천시장이 프랑스 장-마르크 아이로(사진 오른쪽) 총리와 세이셀공화국 제임스 알릭스 미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2일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순천시와 우호교류 도시인 낭트시의 전 시장을 역임했던 장-마르크 아이로 국무총리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조 시장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프랑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낭트시장이었던 장-마르크 아이로는 지난 5월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조 시장은 민선 3기 4대 시장으로 재임 당시 프랑스 낭트시장인 장-마르크 아이로 현 국무총리와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순천시는 프랑스 낭트시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고향 산천 풍경을 재현한 순천 동산을 조성했다. 현재 순천만에는 프랑스풍 낭트 정

원과 낭트시 전통 육신인 빨래배가 설치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또 28일부터는 세이셀공화국을 방문해 제임스 알릭스 미셸 대통령을 만난다.

조 시장은 대통령과 공식 면담시 내년 4월 20일 개막하는 정원박람회에 세이셀공화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 할 계획이다. 현재 세이셀공화국에서는 정원박람회장에 실내정원을 조성 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송광사·선암사·화엄사·대흥사 일원

전국 사진찍기 좋은 가을 풍경 30선에 선정

순천만, 송광사·선암사, 지리산 화엄사,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이 가을 사진찍기 좋은 장소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문화재청이 17일 발표한 사진찍기 좋은 가을 풍경 문화재 30선에 순천시 2곳을 비롯해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일원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는 고창 문수산 단풍나무 숲(463호)과 무주 구천동의 일사대 일원과 파회·수심대 일원, 고창

선운산의 도솔계곡 일원이 꼽혔다.

이번 발표는 문화재청 헤리티지제널 사진작가 65명이 추천한 곳이다. 순천만(명승 41호)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5대 연안 습지의 하나로 갈대숲과 갯벌 그리고 철새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은 봄에 피는 꽃보다 더 붉은 가을 단풍뿐만 아니라 산행 길 또한 아름다워 가을 풍경 담기에 좋은 곳으로 추천됐다.

이 밖에도 천연기념물인 설악산(171호)과 한라산(181호), 달마산 미황사 일원(59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61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62호)이 꼽혔다.

계곡 명승으로는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11호), 동해 무릉계곡(37호), 무주 구천동의 일사대 일원(55호), 고창 선운산의 도솔계곡 일원(54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66호)이 포함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일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일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가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6기비너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차안내 : ● 송광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송광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